

고양 사랑방

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종류**
수필·공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만화 등 제한 없음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 **원고마감**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E-mail** gysosic@korea.kr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3 월 호 독 자 후 기



안영교(고양시 덕양구)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건강관리에 소홀한 것 같아 주말에 송강 공릉천 길을 송강, 이랑, 강아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과 함께 걸어볼까 합니다.



이나라(고양시 일산동구)

고양 역사 산책의 일제 지명에 관한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 모던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일제 잔재가 하루빨리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3 월 호 정 책 퀴 즈 당 칙 자

강두민, 김진아, 김미주, 신윤지

3월호 정책퀴즈 문제

1.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 철도 부문에서 ▲ GTX-A 000 추가 신설 ▲ 000 신설 ▲ 대곡-고양시청-식시간 신교통수단 도입 ▲ 경의선 증차 등이 포함됐다.
2. 지난 2월 3일 고양시장, 김포시장, 파주시장이 함께 0000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답 : 창릉역, 고양선, 일산대교



그녀의 친절함에 힘을 내봅니다

문명자

바람이 몹시 불던 날, 관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학교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60대 나이에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요즘, 하루 세 시간의 일자리라도 7월 말까지 할 수 있겠다니 한번 해보자는 의욕을 갖고 찾아간 길이었다.

그런데 막상 창구에서 안내서를 보니 나는 참여자격에서 배제 대상자였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가정경제, 앞이 안 보이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한 가닥 희망을 준 일자리사업이었는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게 산정돼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남편의 사업은 코로나 이후, 위기에 봉착해 임대료는 밀리고 당장 내야 할 세금도 카드빚으로 메꿔야 할 정도였다. 집 담보 대출금 이자가 버거워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데 건강보험료는 제 자리……. 하소연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그냥 뒤돌아서는데 목이 메어왔다. ‘이 나이에 일자리라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낙심하고 돌아서는 찰나, 일자리 상담창구 직원의 친절할 목소리에 마음이 풀려 걸음을 멈췄다. “민간 일자리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보는 사람도 힘들 정도로 만삭의 상태였던 그 직원은 어느 분야의 일을 원하는지, 자격증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민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약속했다. 친절할 목소리에 힘입어 이것저것 묻고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이미 60대 중반에 들어선 나에게 요양보호사 일자리와 무료로 교육하는 곳을 추천해주었다. 코로나 시대에도 수요는 줄지 않고,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발산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비록 눈밖에 안 보이는, 마스크 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이 따듯해서 얼어붙은 마음이 스르르 녹는 기분이었다. “정발산역에서 15분 거리예요.” 그곳의 위치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상냥한 목소리가 어찌나 희망차게 들리던지 돌아오는 길에 마주 불어오는 바람조차 상쾌한 느낌이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매일 반복되는 자신의 일자리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그래도 아픈 곳은 없는 60대가 아닌가.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니, 그리고 그런 일자리가 있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00세 인생에 60에서 75세까지가 가장 전성기였다고 김형석 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인생의 전성기에 진입했다. 이제까지는 나와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일에 도전해보자고 마음먹었다. 무언가에 도전하고 열중하다 보면 코로나도 물러가고 가정경제 위기도 고비를 넘길 것이다. 새로운 소망을 준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감사하다.

